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권명진*, 김미진*, 김영희*

요약

본 연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제도 개선과 정책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 일반적 변수와 장애인에 대한 낙인 및 태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태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145명이며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 한 달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장애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낙인과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낙인은 태도와 순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09$, $p=.000$). 또한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F=49.984$, $p=.000$) 설명력은 25.4%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낙인이 증가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 및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The Study of Factor that Affects the Stigma and Attitude toward an Adult with a Dis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Myoung-Jin Kwon*, Mi-Jin, Kim*, Young-Hee Kim*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factor influencing attitude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experiences related with the disabled and stigma toward an adult with a disabi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5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n Daejeon. Data were collected during May, 2012.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by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SPSS 18.0 program.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tigma and attitude toward adult with a disability($r=.509$, $p=.000$). Attitude of significant factor explained 25.4% of stigma toward adult with a disability in college students($F=49.984$, $p=.000$).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development of intervention strategies and clinical education to decrease negative attitude and stigma toward adult with a disability.

Key Words : Stigma, Attitude, Disability, Nursing College Students.

* 해천대학교 간호학부 (✉mjkim@hu.ac.kr)

· 제1저자(First Author) : 권명진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김미진

· 접수일(2013년 2월 8일), 수정일(1차 : 2013년 3월 4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26일)

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장애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등록되는 장애인수가 증가되는 추세이며[1] 그에 따른 국가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지만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4].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과 물리적 측면의 개선, 통합교육과 같은 인식제고 등의 실천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전되었지만 장애인과의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접근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3][5].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6]. 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각각의 문화권속에서 이해해야 할 영역으로 외모를 중시하고 동질성과 보편인간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더욱 부정적이다[2][3][4].

낙인이란 사회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종족적 정체성, 꼬리표, 차별의 속성)을 지니며 그 결과로 사회적 거부, 사회적 지지의 결핍, 낮은 지위,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면서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다시 말해 장애인은 사회의 다수에 의해서 비우호적으로 평가되고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처우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은 장애인에게 낙인을 강화시켜 장애인이 실제 겪어야 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강화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8]. 따라서 진정한 장애인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정서적,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함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이해하고 관련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인은 또한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영향에 따른 변화를 통해 변형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9].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 형성 과정에서 중재가 이뤄지면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고[10][11][12][13] 중재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부정적인 태도 형성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낙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낙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낙인을 감소시키는 중재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향후 간호사로서 장애인과 상호작용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낙인 감소를 위한 중재 전략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차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현장에서 장애인과 상호작용할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정도 및 낙인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 및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태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정도를 파악하고 태도와 낙인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3.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는 설문과정 중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것과 연구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 된다는 내용을 설문 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에 진행하였다.

3.3 연구도구

1) 낙인

낙인은 이인옥(2007)이 개발한 지각된 낙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4].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 6점 척도로 저평가(10문항), 접촉기피(6문항), 차별(9문항)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인의 정도가 심

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4였다. 도구의 하부요인별 신뢰도는 저평가 Cronbach's alpha = .84, 접촉기피 Cronbach's alpha = .78, 차별 Cronbach's alpha = .85였다.

2) 태도

태도는 1957년 Osgood등[15]이 개발하고 1964년 장동환[16]이 한국어 형용사 용어로 번역한 의미분석척도의 평가인자 영역 중에서 태도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9개의 형용사를 선택해 재구성한 의미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의미별척도는 긍정적인 1점에서부터 부정적인 10점까지의 각 형용사 문항으로 구성된 10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75이었다.

3.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D지역에 위치한 H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2년 5월 한 달간 이루어졌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과 설문도중 연구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위 내용이 포함된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에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표기가 불명확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145부(96.6%)를 자료 분석 하였다.

3.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낙인과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일반적인 특성과 태도, 낙인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3)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은 sim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자가 15명(10.3%), 여자가 130명(89.7%)이었고 나이는 20-30세가 139명(95.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나이는 22.9세이었다. 장애접촉 유무는 121명(83.3%)이 가깝게 장애인을 접촉한 경험이 없었으며 나머지 24명(16.7%)은 장애인과 가깝게 관계한 경험이 있었다. 임상실습을 통해 장애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임상실습경험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배정하여 분석한 결과 실습을 시행하지 않은 1학년이 42명(28.9%),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과 3학년이 103명(71.1%)으로 임상실습경험 대상자가 더 많았다. 학년은 3학년이 66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5	10.3
	Female	130	89.7
Age	20-30	139	95.9
	>31	6	4.1
Experiences related the disabled	Yes	24	16.7
	No	121	83.3
Experiences related clinical practice	Yes	103	71.1
	No	42	28.9
Grade	1	42	29
	2	37	25.5
	3	66	45.5

4.2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전체 낙인은 73.75이었다. 학년별 장애인에 대한 낙인점수는 1학년이 70.35, 2학년이 79.51, 3학년이 72.69로 2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2.322, p=.102$).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낙인의 평균값은 경험이 있다고 말한 대상자가 74.70, 경험이 없다고 말한 대상자가 73.80(17.88)로 장애인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높게 나왔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54, p=.879$). 또한 성별($t=-.431, p=.667$)과 임상실습경험 유무($t=1.325, p=.187$)에 따른 집단간 차이도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전체 태도점수는 50.55로 부정적이었다. 학년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1학년이 50.66, 2학년이 52.00, 3학년이 49.68로 나타나 2학년이 장애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긍정적이었으나 학년별 태도점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824, p=.441$).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태도의 평균값은 경험이 있다고 말한 대상자가 50.33, 경험이 없다고 말한 대상자가 50.61로 장애인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이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43, p=.887$). 또한 성별($t=-1.599, p=.112$)과 임상실습경험 유무($t=.094, p=.925$)에 따른 집단간 태도의 차이도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of stigma, attitude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5

Categories		Stigma			Attitude		
		Mean(SD)	F(p) or t(p)	Levene's test(p)	Mean(SD)	F(p) or t(p)	Levene's test(p)
Grade	1	70.35(17.15)	2.322(.102)	3.013(.052)	50.66(17.15)	.824(.441)	2.958(.055)
	2	79.51(18.37)			52.00(6.12)		
	3	72.69(21.61)			49.68(9.86)		
	total	73.75(19.78)			50.55(8.80)		
Experiences related the disabled	Yes	74.70(27.57)	-.154(.879)	6.915(.009)	50.33(10.32)	-.143(.887)	1.237(.268)
	No	73.80(17.88)			50.61(8.55)		
Gender	Male	71.66(18.72)	-.431(.667)	.026(.871)	47.13(7.38)	-1.599(.112)	.430(.513)
	Female	74.00(19.96)			50.95(8.89)		
Experiences related clinical practice	Yes	75.14(20.68)	1.325(.187)	1.328(.251)	50.51(8.75)	.094(.925)	.092(.763)
	No	70.35(17.15)			50.66(9.05)		

4.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 및 태도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낙인간에는 순상관 관계가 나타났다($r=.509, p=.000$). 일반적 특성인 나이와 학년, 장애인 접촉유무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낙인과 태도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igma & attitude
n=145

Variable	Stigma	r(p)
Attitude	.509(.000)	

4.4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낙인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태도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낙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2.149로 비교적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에는 문제가 없어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회귀식을 위한 독립변수는 태도변수만 투입되었으므로 회귀식을 위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았다. 회귀식 가정 확인을 위해 잔차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 표준화된 예측값과 회귀표준화 잔차의 산포도를 통해 잔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성,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선형성 가정이 성립되어 회귀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25.4%이었다 ($F=49.984, p=.000$)<표 4>.

표 4. 낙인의 예측요인
Table 4. The Predictor of stigma

n=145

	Variable	B	β	t	p	R ²	F	p
Model	Attitude	1.143	.509	7.070	.000	.254	49.984	.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태도를 확인하고 낙인과 태도의 상관관계 및 태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낙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낙인은 학년, 성별, 장애인 접촉유무, 임상실습경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와 순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태도와 낙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과의 통합경험에 따른 접촉경험이 긍정적 태도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7][18][19]와 차이가 있으나 접촉경험을 지인여부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며 접촉경험의 방법에 따른 추후 연구를 통해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접촉유무에 따른 태도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인 것[17][18][19]과 부정적 결과[20]가 동시에 보고되는데 장애인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과의 접촉기회를 가진 임상실습 경험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따른 태도와 낙인의 집단 간 비교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통한 단순한 장애인과의 물리적 접촉경

험은 인식자의 태도개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실습에 의한 접촉경험의 질적인 부분도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 통합을 위한 중재전략으로 접촉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재전략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반복 연구와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진행되어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 태도와 낙인은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1][20]. 지식의 정도가 증가하는 학년에 따른 태도와 낙인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17]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에서 학년 간 차이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전환은 단기간의 교육이나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도와 낙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태도가 낙인에 주요 영향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낙인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형성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 인식하는 낙인은 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거부,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결핍, 낮은 지위라는 결과[7]를 초래하며 이러한 영향은 그대로 장애인에게 전달되어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장애인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우울, 불안

과 같은 정서장애를 경험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통스런 삶을 보내게 된다[21][22].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인 간호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그 어느 대상보다 중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인 태도와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단순한 접촉 경험 기회 증가나 일시적인 교육만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진정한 개선 전략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에 따른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7][23][24]. 구체적인 전략 실천으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의 의무화나 장애인 돌보기 임상실습 프로그램등을 적용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므로 일반화에 있어 제한적이며 추후 반복연구와 대상자 확대를 통한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1] 장애인 통계집,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고용노동부, 2011.
- [2] Yu, C. S,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g-ju University of Korea, Seoul, 2012.
- [3] Lee, H. W, "Th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s Stereotypes toward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4, No. 2, pp. 67-85, 2003.
- [4] Kim, K. H, "A study of student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region Busan and Gyungna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3, No. 1, pp. 27-48. 2006.
- [5] Hepler, J, Mainstreaming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 Have We Improved Their Social Environment, *Social Work in Education*, Vol. 16, No. 3, pp. 143-154, 1994.
- [6] Lee, I. O, "Perceived Stigma and Self-esteem of the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Journal Muscle Joint Health* Vol.14 No.1, pp. 52-60, 2007.
- [7] Lee, I. O and Lee, E. O. "Concept analysis of stigma". *J Rheumatol Health*, Vol. 13, No. 1, pp. 53-66, 2006.
- [8] Matt, S. L and Butterfield, P, "Changing the disability climate: promoting tolerance in the workplace", *AAOHN J*, Vol.54, No. 3, pp. 129-133, 2006.
- [9] Jung, M. Y and So, H. Y,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perceived stigma towards physically disabled between physically disabled and non-disabled". *Journal Rehabil Nurs*, Vol. 11, No. 1, pp. 13-24, 2008.
- [10] Kim, M. O, " A Study of Social Distance on People with Disability and Self Concepts of Social Work Student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15, pp. 138-167, 2003.
- [11] Son, S. 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Distance of Children from Disabled Classmates in Inclusive Clas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7, No. 4, pp. 147-170, 2005.
- [12] Yang, J. H, "Effects on Mainstreaming of Circle Activities about Disabilitie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ttitudes, Efficacy, and Performance" ,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 Vol. 28, No. 1, pp.147-170, 2007.
- [13] Yucker, H. E., *The Measurement of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Psychometrics and Scales*, 1988.
- [14] Lee, I. O, Development of perceived stigma scale (PSS) for the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7.
- [15] Osgood L. E, Suci and Tannenbaum P. 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1957.

[16] 장동환,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논문집, 제 9권, 1964.

[17] Choi, G. H, "Differential Attitudes of Korean Studen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0, No. 2, pp. 72-83, 2003.

[18] Cheon, I. H, A Study about Recognition of Normal Children in Integrated Educ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of Korea, Seoul. , 2005.

[19] Choi, S. J, General Attitude of Students in Accepting Disabled Students in Integrated Classes of Middle School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5.

[20] Lee, M. J, The Research on recognition of mainstreaming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 of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5.

[21] Link, B. G. and Phelan, J. C.,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7, pp. 363-385, 2001.

[22] Song, S. H, Self-Stigma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the Experiences of Overcoming I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5.

[23] Song, S and Kim, J. M,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 acceptiv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9, No. 1, pp. 83-99,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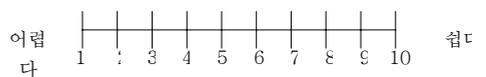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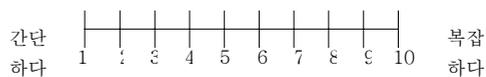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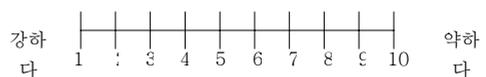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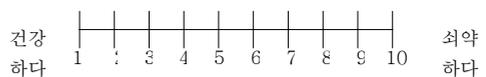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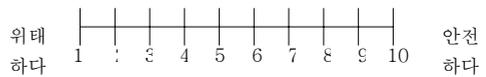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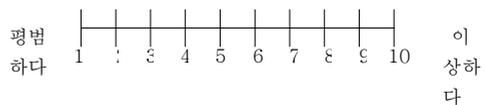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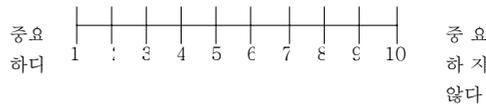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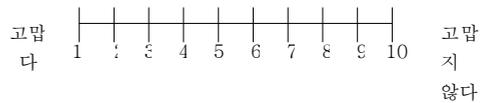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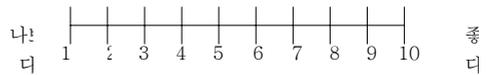
[24] Lee, J. S, "A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6, pp. 151-176, 2005.

<부록 1 >. 태도측정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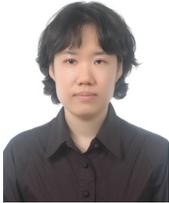
※ 아래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가 양극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10단계의 척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아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지점(숫자표시된 곳)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정

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 느낌,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저자소개



권 명 진(Myoung-Jin Kwon)

2008년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0년 - 현재 : 혜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정신건강, 노인간호



김 미 진(Mi-Jin Kim)

· 2007년 : 충남대학교 간호학석사

- 2011년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1년 - 현재 : 혜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정신건강, 가족간호



김 영 희(Young-Hee Kim)

· 1999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5 - 현재 : 혜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여성건강, 건강증진